주일예배 오전(1부, 노량진) 6시 / 오전(2부) 7시 / 오전(3부) 10시 / 오후(4부) 2시 / 수요예배 저녁 8시 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Jesus Centered News

주일예배 1부(오전) 7시 / 2부(오전) 10시 / 3부(오후) 2시 / 수요예배 저녁 8시 30분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3년 11월 12일 (제1227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붕우컬럼

덕(德)

'덕필유린(德必有隣)'이란 말이 있다.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고 반드시 이웃이 있게 마련이라는 뜻이다.

언젠가 호형호제(呼兄呼弟)하는 분에게 내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발이 넓어도 머물 곳이 없다면 내가 덕이 없는 겁니다." 그분은 내 말을 콩떡 같이 알아듣고는 무릎을 쳤다. "맞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잘 났어도 덕이 없으면 급할 때 나를 받아주는 사람이 없지요."

덕은 베풀 덕(德)이다. 마음을 베풀고, 물질을 베풀고, 선을 베푸는 것이 덕이다. 그런 자에게 사람이 몰리는 것은 인지상정(人之常情), 그래서 다윗에게는 사람이 몰렸고, 사울에게서는 사람이 멀어진 것이다. 성경은 덕에 대해 여러 가지 방향을 지시하셨다. 과부나 고아를 돌보는 것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도 덕이요, 남을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않는 것이 덕이요,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이 덕이요, 선물을 주는 것이 덕이요, 남의 약점을 드러내지 않고 덮어주는 것이 덕이요, 오리를 가자고 할 때 십 리를 동행해주는 것이 덕이요, 연약한 믿음 앞에서 믿음을 과시하지 않는 것이 덕이라 말씀하신다.

내가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말씀이 이것이다.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고전14:17). 나는 하나님 일과 성도들에게 물질로는 잘 베풀었으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있었기에 하나님이 나를 깨우치신 것이다.

덕은 '신의 성품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베드로 사도는 신의 성품에 이르는 단계를 "너희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벧후1:5~7)고 말했다.

덕이 있는 자가 가장 큰 그릇이다. 큰 그릇 안에 작은 그릇들이 들어가는 법, 그래서 덕장(德將) 밑에 지장(智將)과 용장(勇將)이 있는 것이다. 덕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롬14:18). 덕이 있는 자가 되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찌니라"(롬15:2).

똑똑한 자보다 덕(德) 있는 자가 돼라

대기업들의 인재 선발 기준이 예전보다 많이 달라졌다. 예전에는 학력을 중시했다면, 요즘에는 그보다도 인성(人性)에 더 주목한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인재를 선발하여 부서에 배치해보니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보다 부서에 잘 녹아들고 친화력이 좋은 사람이 결국 기업에 보탬이 되더라는 통계가 나왔기 때문이다. 세상에 혼자 해서 가능한 일은 얼마 되지 않는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 이루어지는 일이 대부분이기에 예부터 덕(德)을 인간의 중요 덕목으로 말했고, 성경도 믿음 위에 덕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이다.

목사님은 수요예배를 통하여 '똑똑한 자보다 덕 있는 자가 돼라. 덕장(德將) 밑에 지장(智將)과 용장(勇將)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인천 예수중심교회 주일예배 광경

"한(漢)나라를 세운 유방(劉邦)이 항우(項羽)와 싸울 때의 이야기를 기록한 초한지(楚漢志)에 보면, 초(楚)나라를 세운 항우는 천하장사로 그와 겨루어 이길 자가 없을 만큼 용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항하는 유방은 백성을 사랑했고 덕망이 높았습니다. 초반 기세로만 따지면 당연히 항우의 세력이 강성했습니다. 그러나 유방의 덕망을 흠모하는 천하의 인재들이 그의 밑에 몰려들었고, 장량(張良), 한신(韓信), 소하(蕭何) 등 지략과 군사, 행정에 탁월한 인재들이 유방을 주군으로 모시며 대업을 도모했습니다. 이에 반해 항우는 제힘만 믿고 충신 범증(范增)조차 제대로 기용하지 못하더니 마지막 전투에서 유방에게 패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요.

자고로 덕 있는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몰려들기 마련입니다. 백이면 백 모두에게 물어보세요. 소리나 벅벅 지르는 남편, 아내, 부모, 상사가 좋다는 사람 있나. 보나 마나 머리를 흔들며 싫다고 할 겁니다. 정치나 사업, 목회, 가정,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주변에 왜 사람이 떠나는지 답은 자명합니다. 온유하고 베풀기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나 칭송받고 사람들이 따르게 되어있습니다. 어디 사람뿐이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이방인 최초로 성령을 받는 사건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야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행10:1~2). 하나님은 이러한 고넬료에게 사도 베드로를 보내어 죄사함의 복음을 전케 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제가 평신도 시절, 하나님께 처음 들은 음성이 '고린도전서 14장 17절을 봐라!' 하는 천둥 같은 소리였습니다.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고전14:17). 제가 그 당시 교회 일에 열심을 낸 것은 사실이었으나 돈 좀 있다고 앞장서 나섰던 것들이 교인들에게 덕이 되지는 못했던 것을 깨우쳐주신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성경을 확인하며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열심은 있으나 자꾸 소리가 나는 사람은 덕이 없기 때문입니다. 목회에 실패하는 사람들 보면 덕이 없어 성도들을 사랑으로 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음 위에 덕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신앙의 8음계를 제시했지요.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벧후1:5~7). 믿음과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 8가지 덕목, 저는 이것을 신앙의 8음계라 말합니다. '도레미파솔라시도'라는 이 8음계가 잘 어우러져야 아름다운 노래가 되듯, 우리 신앙생활에 베드로 사도가 말한 신앙의 8음계가 잘 갖춰져야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넉넉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8음계도 모르면서 무슨 노래를 하겠습니까? 신앙의 8음계도 모르면서 어찌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겠습니까? 우리 모두 신앙의 8음계를 잘 갖춰서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은택 목사

추계산상집회
날짜: 2023년 11월 27일(월)~ 30일(목)
장소: 장성 예루살렘기도원 문의: 02. 533. 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눅10:17~20)

연장은 쓰라고 준 것이지 진열품이 아니다

목회 초, 비싼 가구로 서재를 꾸미고, 각종 전집 도서를 사서 책장을 꽉 채웠습니다. 멋졌습니다. 그 책을 읽었느냐고요? 천만에요. 그저 잘 꾸며놓고 폼만 잡았습니다. 책은 읽어야 내 지식이 되건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잔뜩 진열해놓은 것입니다.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책이 진열품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래서 신학교에 다기증했습니다.

가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모을 줄만 알지 제대로 쓸 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쌓인 돈을 보며 희열을 느끼며 산다지만, 그게 어디 돈입니까? 장식품이지요. 돈은 써야 돈인 겁니다. 성경에는 그런 자들을 '악한 병에 걸렸다'(전6:1~2)고 하십니다. 있어도 못 쓰고, 줘도 못 쓰는 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연장이 좋아야 일을 잘하고 무기가 좋아야 이길 수 있다

악한 병에 걸린 자들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장식품처럼 가만히 두고 보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마치 암행어사가 마패를 집에다 장식해 놓고 전국을 돌아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마패 없이 큰 소리로 '내가 암행어사다' 해보십시오. 가는 곳마다 포졸에게 곤장을 맞고 쫓겨날 것입니다. 마패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가슴에 품고 있다가 제때 내놔야 각 고을 수령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의 비리가 밝혀지면 죄질에 따라 형을 집행할 수 있는 겁니다. 마패가 왕의 권세를 부여받았다는 증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만왕의 권세를 부여받은 증표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그 이름으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의 이름인데,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요14:26).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이 하신 일, 곧 귀신을 쫓고 모든 병을 고친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라(요14:12)'고 말씀하신 이유도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마패를 가지면 왕과 같은 권세를 가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장식품처럼 모셔놓고 사용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보십시오. 귀신들이 비웃고 때리고 가지고 놀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병들고, 망하고, 싸우고 사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마패를 내밀어야지요. 예수 이름을 사용해야지요. 암행어사가 마패를 꺼내 들면 탐관오리들이 그 앞에 벌벌 떨듯, 우리가 예수 이름을 꺼내 들면 마귀와 그의 추종자 귀신들이 벌벌 떨고 나가게 됩니다. "내 주제에 무슨 귀신을 쫓아?" 하십니까? 박문수라는 암행어사가 행색이 좋았겠습니까? 인물이 대단히 잘 났겠습니까? 아닙니다. 행색은 거의 볼품없었지만 마패를 보고 다들 그 앞에 조아린 것입니다. 우리를 보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이름'을 보고 마귀와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나 요한, 사도 바울을 보고 귀신이 떠나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내민 마패, 곧 예수 이름을 보고 귀신들이 떠나간 것입니다. 이초석을 보고 귀신이 떠나가는 게 아니라 제가 내민 마패, 곧 성령으로 오신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가는 것입니다.

총회장 이초석 목사

그 귀한 것을 왜 장식품으로, 왜 진열품으로 모셔만 놓고 계십니까? 마패에는 왕의 권세가 있듯, 예수 이름 앞에 하늘의 것과 땅의 것, 땅 아래 것들이 복종하게 되어있는데 말입니다(빌2:10). 예수 이름 앞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 없는데, 왜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겁니까?

여러분, 마패를 잃지 않는 법, 성령충만을 잃지 않는 법은 오직 기도에 있습니다. 왜 성령이 장식품으로 전락했는가 하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빠서 못하고, 귀찮아서 안 하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고, 지갑 속의 돈처럼, 제 서재의 책처럼 그냥 진열되어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어렵다면 어렵지요. 그러나 기도의 맛을 알면 절대 기도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마패를 가슴에 품고 다니는 것이 귀찮을 수 있지만, 그것을 내미는 순간 모든 자들이 굴복하는 것을 알면 마패가 귀한 것임을 알 듯, 기도로 성령충만하여 귀신을 내쫓아본 경험이 있다면, 병을 고쳐본 경험이 있다면 기도가 즐거울 것입니다.

예수님은 동트기 전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기도하셨고(막1:35),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후에도 저녁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눅5:16). 예수님도 성령충만을 위해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새벽에 일어나 2시간 기도하고, 아무리 피곤해도 밤에 2시간 기도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회에 나가면 평균 7시간 기도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는 병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그의 아버지가 데리고 왔으나 제자들이 쫓지 못해 결국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제자들이 겸연쩍은 듯이 예수님께 그 비법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막9:29).

성령의 불이 활활 타게 하는 방법은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아 성령을 소멸한 자는 지갑은 명품인데, 지갑이 비어 있는 사람과 같고, 총은 있는데 총알이 없는 것과 같고, 배터리가 떨어진 핸드폰을 들고 있는 것과 같고, 전기가 나간 집에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덤빕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각 사람에게 각각의 은사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연장이나 무기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꼭 필요한 연장과 무기를 주신 것입니다. 예전에는 '일 잘하는 놈은 연장 탓 안 한다.' 했는데, 요즘은 연장이 좋을수록 일을 더 잘한다고 합니다. 호미로 온종일 일하는 것보다 포클레인으로 한 번 파는 게 낫지 않습니까. 기도원의 직원은 몇 명 되지 않지만, 그 일을 다 해내는 것은 연장이 많고 좋기 때문입니다. 전쟁도 예전에는 육탄전이었다면, 지금은 첨단무기전입니다. 누가 더 성능 좋은 무기를 가졌느냐에 전쟁의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입니다(엡6:12).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무기가 좋아야 합니다. 최고의 무기가 바로 성령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으로만 마귀와 그 일당을 무찌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병들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망하게 하고, 죄짓게 하는 마귀와 그의 졸개들을 쫓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의 능력입니다.

병 들었습니까? 성경에는 '모든 병'과 '각색 병'이 다 귀신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막1:32, 1:34, 마10:1). 감기도(마8:15), 불치병도, 정신병도 다 귀신의 장난이니 쫓아버리세요. 마패를 내어놓으세요.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고 안수하신 것처럼 예수 이름으로 쫓으세요. 그러면 당신과 가정, 사회나 교회에 천국이 임할뿐더러, 당신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게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눅10:19~20).

연장도 쓰지 않으면 녹이 슨다

알아야 자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찌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막16:16~18)고 말씀하셨습니다. 총을 주셨고, 쏘는 법과 관리법도 다 알려주셨으니 그대로 하면 우리 삶에 자유가 찾아옵니다. "진리를 알찌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8:32).

제가 부탁하건대, 주의 종들은 아침저녁 2시간씩 기도하고, 성도들은 1시간씩 기도하십시오. 삶이 천국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마12:28).

할렐루야!

:: 객원컬럼 ::

경제 위기에 대처하려면

연준(FRB)은 시장참여자의 원성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 18개월에 걸쳐 기준금리를 0.25%에서 5.5%까지 상향 조정하였지만, 그들의 목표 인플레이션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재정지출 규모를 확대하고 있어 실세금리가 기준금리를 압도하는 상황까지 발생했고, 결국 채권, 주식, 상업용 부동산은 물론 실물경제까지 완전히 조정되어야만 현재의 불확실성이 제거되리라 예측합니다.

일부 경제 및 자본시장 전문가들은 AI, 시스템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메타버스 등 미래 유망산업에 대한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권유하고 있고, 현행 금리를 유지할 경우 시장이 붕괴될 것이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결국 금리를 하향 조정할 것이며, 2024년은 미국의 집권당이 대선 승리를 위해서라도 재정지출을 확대할 것이기 때문에 위기가 기회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연준 경제 데이터(FRED)의 공식 집계내용을 분석해보면, 1982년부터 2008년까지는 M1 통화에 대한 증감 폭을 −0.13%, M2는 2.7%로 유지해왔고, 2008년 금융위기 때는 M1 통화의 공급 규모를 전년대비 15%까지 확대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시켜왔지만, 2018년부터는 안정적으로 축소했기 때문에 시장은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COVID19가 발생하자 연준은 M1을 전년 대비 3.5배, M2는 1.24배 수준으로 확대 공급하였습니다. 이러한 통화공급은 실질 GDP 성장에 기여도 못한 채 심각한 자산의 고평가와 악성부채를 발생시켜 거미줄처럼 연결된 세계경제가 동시에 붕괴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감행하였고, 현재 전 세계 시장참여자들은 우왕좌왕하며 고통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반면 5개국의 협력으로 시작된 BRICS 연합에 최근에는 주요 산유국과 자원 부국들이 적극적으로 참여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외교적 이유가 아니라 주요 전략자원의 경우 달러화로 통용해왔는데, 이들은 상품의 수요 변동성으로 인한 손실위험보다 달러 대비 자국 화폐가치의 변동성으로 인한 손실위험을 회피하고 세계시장의 붕괴가 도래했을 때 자주적인 시장지배력을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COVID19가 도래했을 때 가계부채와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적인 합리화를 해야 했지만 이미 기회를 놓친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도래한 충격을 각 당사자가 극복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총회장 목사님께서는 '거센 파도가 유능한 해군을 만들고, 파도도 선장의 마음을 읽는다' 하셨습니다. '문제를 징검다리 삼아라' 말씀하십니다. 항상 더 좋은 길로 인도해주시는 하나님을 그 어느 때보다 의지해야 하는 시기라 생각합니다.

임윤석

:: 오늘의 메시지 ::

신앙의 목적을 잊지 말자

비록 풍파에 휩쓸리더라도 목적지가 있어서 조금씩이나마 앞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항해하는 배이다. 그러나 거센 물살을 헤치고 나간다고 해도 목적지가 없다면 그것은 표류하는 배이다.

우리 삶이 이와 같다. 우리 삶은 목적지가 있는가? 중고등부 예배에 가서 한 학생에게, "예수를 왜 믿니?"라고 물으니 두 번도 생각지 않고, "천국 가려고요!"라고 대답한다.

신앙의 가장 큰 목적은 천국 가는 것이다. 천국 가기 위해 예수 믿고, 그날의 상급을 위해서 열심을 품고 헌신, 봉사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열심을 행할 때 하나님은 영생은 물론 우리 삶에 부요와 건강과 행복을 선사해주신다.

그런데 어느 순간 모든 것이 잘되고 편안해지면 신앙의 참된 목적을 잊을 때가 있다. 예수께 나온 부자 청년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고 묻는다. 예수께서는 살인, 간음, 도적질하지 말고, 거짓증거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더니 청년은 어려서부터 다 지킨 것이라고 당당히 말한다. 예수께서는 그럼에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좇으라고 하신다. 그때 청년은 재물이 많은고로 근심하며 돌아갔다. 재물 때문에 영생의 목적을 잊은 것이다. 믿고 따랐다면 금세에 백배요, 내세에 영생을 받았을 것이다(막10:17~22). 천국 열쇠를 받은 베드로는 어처구니없게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땅의 일을 생각하다가, '사단아, 물러가라!'는 책망을 듣게 된다(마16:23~26). 예수님의 목적의식을 상실케 하는 말이었기 때문이다.

신앙생활의 목적이 분명하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잘 갈 수 있다.

김상욱 목사

:: To Be Succeeded ::

신앙의 명마

어떤 고민거리를 놓고 기도하는 중이었다. 누가 보아도 사람이 나서서 추진할 필요가 있는 일이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강한 감동으로 응답하셨고, 그 후로는 그 문제로 크게 근심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알고 믿었기 때문이다.

중대한 기로에 설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과 꿈 등의 계시를 통하여 항상 더 좋은 길로 인도하셨다. 믿음이 없어 내 소견대로 행로를 바꾸려 할 때는 꿈으로 인치듯 교훈하셔서 구덩이로 빠지는 것을 막아주셨고, 두려워 전진하지 못할 때는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여 떠난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으로 강력하게 끌어주셨으며, 또한 믿음이 퇴색되어 부정에 빠져있을 때는 마음의 눈을 열어 나의 모습을 보게 하셔서 회개케 하시고 심령을 새롭게 해주셨다. 다시 말해, 주님은 언제나 나를 옳은 길로 붙잡아 매주셨고,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역사해주셨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수록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더불어 경외하고 순종하는 마음이 생겨났다.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신다(히11:1). 연약한 우리는 내 눈에 보여지는 대로 일, 가족, 진로 등에 대해 근심 걱정하고 조바심을 내어 내 수준에서 단정 짓는 우를 범할 때가 많으나, 우리 하나님께는 하룻밤 사이에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시고, 한순간에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키신 일이 어렵고 특별한 일이 아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우리 인간의 상식 속에 머무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문제 앞에 기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는 더욱 뿌리 깊어지고 단단해질 수 있다.

명마란, 주인이 가랄 때 가고 서랄 때 서는 말이다. 인생에 수많은 난제 앞에 내 생각이나 경험, 또는 불평을 내려놓고 오직 겸손히 기도함으로 하늘로부터 오는 믿음을 받아 반응한다면, 우리도 주님 명에 따라 가고 설 수 있는 신앙의 명마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워서 우리 믿는 자들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처럼 말이다.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것이 믿음이요 순종임을 기억하자.

이국진 사모

:: 낮은 울타리 ::

유종의 미

'유종의 미'는 '한번 시작한 일을 끝까지 잘하여 맺은 좋은 결과'라는 뜻이다. 아마 끝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시작하는 것만큼 어렵기 때문에 이런 말이 생겨난 듯하다. 실제로 모두가 느끼겠지만, 연초에 이시대 목사님 설교를 듣고 목표를 한가득 써 내려가는 것은 참 쉬웠다. 하지만 노트를 펼쳐 보면 시작했지만 흐지부지 그만두게 된 목표가 있다.

끝을 잘 맺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연초에 세운 목표들을 바쁘다고 하루 이틀 빼먹으면 어느새 중도 하차하여 더는 하지 않게 된다. 그뿐만이 아니다. 요즘 들어는 2023년이 두 달 정도 남았으니 남은 목표들을 지워버리고 '내년부터 잘하자!'라고 다짐하기도 하고, 연말이라고 내가 감당하던 직분에도 시들시들 지친 모습도 보인다.

이럴 때야말로 '유종의 미'라는 말에 집중해야 한다. 특히나 내가 임명받은 직분에, 혹은 성도라는 직분에 시들시들해졌다면 더욱 끝을 잘 맺기 위해 힘내야 한다. 연초에는 분명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읽으리라 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 첫 마음을 잃고, 하지 않고 있다면 오늘부터 다시 시작해 보자.

당장 어떤 목표부터 실행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가정을 해보면 된다.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난 무엇을 가장 후회할까?', '내일 예수님을 만난다면 나는 무엇을 가장 후회할까?' 아마 지금 생각난 것들이 내가 가장 해야 하는 것일 것이다.

하나님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예한 자가 되리라"(히3:14)고 말씀하셨다. 끝이 아름다워질 때 주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예한 자가 된다. 세상에서는 올해 이룬 목표를 기반으로 내년에는 더 큰 목표를 세워 발전하고 정진할 수 있다.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내 신앙생활의 유종의 미로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영광을 누릴 수 있다.

2023년이 이제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이제라도 후회 없는 2023년을 만들어보자. 유종의 미를 거둬보자.

장수정

:: 성도간증 ::

애통하는 눈물의 기도에 응답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시간도 두 손 들고 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모든 영광은 하나님만 받으시옵소서.

주님, 일본집회 열어주시고, 나가노교회, 동경교회, 지바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어서 교회마다 많은 영혼들을 불러주시고, 교회마다 넘치도록 채워주시며, 많은 영혼들에게 많은 은혜 주시고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자들을 깨워주시니 이번 집회는 분명 주님의 섭리임을 깨닫습니다. 또 한 번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이 단 위에 올라가셔서 목이 터져라 선포하시는 그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시고 운동력이 넘치고 영과 혼과 관절과 뼛속 깊이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시는 능력이 있음을 믿기에 저는 그 말씀을 항상 경청하면서, '주님, 목사님의 저 말씀은 꼭 나를 위해 하시는 말씀이오니 저 말씀이 내 것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믿는 만큼 축복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의 남편 역시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작년 초부터 손발을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때부터 남편은 교회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무슨 병인지 알 수 없어 제가 남편을 큰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검사하니 파킨슨병이라더군요. 병원에서는 발병한 지 10년은 되었을 거라 했어요. 손발에 아무런 힘이 없으니 옷도 혼자 못 입고, 화장실도 혼자 못 가고, 침대에 눕고 일어나는 것도, 밥 먹는 것까지 본인이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옆에서 다 시중을 들어야 하고, 기저귀를 채워드려야 했습니다. 애로사항이 한둘이 아니었고, 정말 힘겨운 날들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당신을 치료할 자는 그 누구도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밖에 할 수 없으니 당신은 꼭 하나님만 믿어야 병에서 치료받을 수 있어요. 총회장님이 일본에 오시면 당신 병은 치료받을 테니 꼭 기도하고 안수받읍시다."라고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부의 이야길 들으셨나 봅니다. 총회장님이 오신 주일예배 때 저는 성전 뒤에 앉아있다가 통성기도 시간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남편을 치료해주시고 내 첫사랑을 회복시켜주셔야 아버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난 이대로 있을 순 없어요!' 얼마나 통곡하며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총회장님이 다가오셔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주시는 것도 모른 채 눈물, 콧물 범벅이 되고 땅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이튿날 저는 남편과 함께 총회장님 숙소로 찾아가 안수기도를 받았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간절히 기도해주시니, 할렐루야! 그다음 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만 받으시옵소서. 병이 치료가 된 시간은 총회장님께서 일본에서 한국행 비행기를 타시고 가신 후였습니다. 남편이 깨끗이 치료돼서 김장길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동경으로 가시다가 집으로 오셔서 집 안에 있는 남편을 밖으로 나오라 하셨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신발도 본인이 신고 밖으로 나와 김장길 목사님과 같이 걸었습니다. 화장실도 본인이 가고요. 김장길 목사님이 걸음도 걸어봐라, 여러모로 테스트하신 후 한국으로 가고 계시는 총회장님께 알리셨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여 확인하신 총회장이 너무 기뻐하시며 전화하셨습니다.

완전히 하나님께서 치료하셨습니다. 남편이 치료되니 저도 완전히 영적으로 회복이 됐습니다. 우리는 주님만 위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저의 식었던 첫사랑을 완전히 회복했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충성하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너무나 두서없는 말만 쓴 것 같습니다. 모든 은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일본 지바예수중심교회 박영임 권사

:: 귀를 기울이세요 ::

살리는 영

최근 이탈리아에서 푸른 꽃게를 폐사시키는데 우리 돈으로 40억 정도 되는 금액을 쓴다는 뉴스를 보았다. 맛있는 꽃게를 왜 죽일까? 사정을 알아보니 이탈리아는 조개가 들어간 봉골레 파스타를 좋아하는데, 이 외래종인 푸른 꽃게가 조개를 다 잡아먹고 있어 폐사를 결정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간장게장, 양념게장, 꽃게라면 등 소비할 수 있는 음식이 많지만, 이탈리아는 꽃게로 할 수 있는 요리가 한정적이기에 꽃게를 버리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에 대한민국의 한 간장게장 업자가 이탈리아 상공회의소에 전화를 걸어 버릴 꽃게를 모두 수입하겠다고 했다. 한쪽에서는 쓸모없다고 버리는 것을 한쪽에서는 유용하게 사용하는 이 사건을 보며 나도 버려진 영혼들을 살리는 영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하였다.

바나바는 바울(당시 사울)을 살리는 영이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죽이러 다니던 자에서 회심하였으나 예수를 믿는 자들은 모두 그를 두려워하고 피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을 믿어주고 제자들과 사귈 수 있게 도와준 것이 바나바였다. 바나나는 선한 자이고 교회에서 덕망이 높은 자였다. 무엇보다 성령이 충만한 자였다. 그러기에 모두에게 왕따를 당하고 있던 바울을 다소에서, 예루살렘에서 불러내어 안디옥에서 함께 사역을 준비하고 파송을 받아 선교여행을 함께 떠나게 된다. 예수님도 공생애 기간 모두를 살리셨다. 벙어리, 소경, 중풍병자 등 육체가 병든 자뿐만 아니라 마음이 병든 자들도 다 살리셨다. 우리 총회장 목사님도 살리는 영이시다. 지난 페루 집회 때도 모두가 꺼리는 여자 목회자를 불러서 그의 원통함을 들어주시고 그를 사용하셨다. 그랬더니 그 목회자로 인해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축복으로 돌아왔다.

우리 각자 성령으로 살아난 것처럼 우리 모두 살리는 영이 되자.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 주는 영이 되었나니" (고전15:45).

송현혜 생도

charisma0691@hanmail.net

JC 아카데미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유튜브생방송 (노량진 교육관)

:: 나도 건강할 수 있다 ::

몸의 염증을 치유하는 맨발걷기란?

요즘에는 등산로나 숲길에서 신발 없이 맨발로 걸어다니는 분들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운동화나 구두로 인해서 바닥의 충격과 자극이 없이 좀 더 편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웬 맨발걷기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과 생활의 편리함으로 인해 우리가 좋은 점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맨발걷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는 어싱(Earthing)이라고 알려져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된다며 조금씩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어싱이란 지구의 표면과 물리적인 접촉을 맺는 활동을 말하는데, 맨발로 땅에 발을 두거나 또는 대지 연결장치를 이용하여 몸과 지구를 연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어싱을 통해서 지구의 음극성 전자를 신체로 이동시킬 수 있으며, 이것이 체내에서 전기적으로 중성화하고 염증을 억제시켜 자연적인 치유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맨발걷기의 장점으로는 하지 근육 활동이 더 개입되어 정맥혈류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으며, 심혈관계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꾸준한 맨발걷기를 한 후에는 심리적인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신발로 인해 발달하지 못한 발의 중요 근육에 해당하는 풋코어의 발달을 도모할 수 있으며, 족저근막염 등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신발이 없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불규칙한 지면을 걷는 과정에서 생기는 능동적 대처로 운동 및 반사신경의 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마사지 효과는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갑작스런 무리한 맨발걷기는 부상을 유의해야 하며 당뇨병이나 순환계 질환이 있는 경우 무리가 되지 않는지 조심하며 진행을 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순탄한 흙이나 황톳길에서 시작하며 차츰 강도를 높여가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이러한 맨발걷기를 이용한 어싱을 통해서 스트레스 감소, 수면 개선, 염증 감소, 에너지 수준 회복 등을 경험한다고 하지만, 아직은 연구의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암환자분들의 재활 치료를 위해서 어싱이 활용이 되고 있으며 자연음식 먹기와 용서하기와 함께 어싱의 중요성이 차츰 더 알려지고 있습니다.

Dr. 설재현 집사

kseolmed@hanmail.net

서울성전 건축헌금 계좌안내

국민은행
026401-04-297823
예금주: 예수중심교회